

18. 자급제 단말기 시험인증으로 가계 통신비 절감 및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은 이동통신사가 단말기와 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하는 이동통신사업자 중심의 구조였다. 이에 소비자는 단말기와 서비스 선택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12년 5월 1일 단말기 자급제를 도입, 소비자가 단말기와 서비스를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 이러한 단말기 자급제 시행으로 특정 이동통신사업자용이 아닌 범용 휴대폰 출시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범용 자급단말기의 경우 이동통신망 위해(危害) 가능성, 호환성 등을 사전 시험해야 하기에 이동통신사업자별로 망연동 시험을 모두 거쳐야 했다. 중소기업에게는 이에 따른 소요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고 자체 시험시설도 없어 제품개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은 저가용 자급단말기 출시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자급단말기 품질인증 절차와

시험규격 탄생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

2012년부터 단말기 자급제도가 시행되었지만, 홍보 부족과 저가 단말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부족으로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었다. 이에 TTA는 자급단말기 품질인증협의체 산하에 국내 이동사, 단말제조사 등의 실무진으로 구성된 시험규격 및 절차 개발을 위한 2개의 연구반을 운영해 자급제 단

말기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급단말기 품질인증 시험규격 및 절차를 제정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험시설을 구축, 2012년 7월부터 시험서비스 제공에 들어갔으며 2013년 3월부터는 자급단말기 품질인증을 본격 시행하였다. 시험규격과 절차를 제정하기까지 각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조율이 좁혀지지 않아 난관에 부딪히는 일이 많았지만 TTA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수차례의 간담회와 연구반 회의를 거쳐 사업자 간 상호호환성을 검증하고 글로벌 시험표준을 준용하는 지금의 TTA 자급단말기 품질인증 절차와 시험규격을 탄생시켰다. 이후 TTA는 자급단말기 품질인증센터를 구축, 중소 제조사에게 매우 저렴한 시험비용으로 원스톱 품질인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단말기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였다.

TTA는 자급단말기 품질인증센터를 통해 대면 컨설팅, 제품 상용화를 위한 인증컨설팅 등 많은 지원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사업초기인 2012년에 5개 모델 출시에 불과했던 자급단

말기는 이듬해 2013년에는 19개로 확대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해 2018년 4월 기준 시장에 출시한 자급 단말기는 총 97개 모델에 이르렀다. 아울러 사업초기 3% 미만에서 그쳤던 시장점유율 또한 2017년도에 8%까지 상승, 2018년도부터는 단말기 제조사들의 플래그십 모델들이 자급제 인증을 획득하고 시장에 출시되면서 10%까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단말기 자급제도의 최종목표는 단말기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가계통신비를 절감하는 데 있다. 현재 자급단말기로 각 통신사의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25%의 요금할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가장 저렴하게 최신의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다. 자급단말기 보급을 통해 단말기 구매 비용 절감과 합리적인 통신요금제 정착이 가능해진 것이다. 아울러 TTA의 자급단말기 품질인증 서비스를 통해 단말기의 품질 향상과 통신망 위해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정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TTA는 제조사와 이동사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 자급단

말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 자급단말기 공동조달 협정식(2013. 9. 4)

